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2. 19.(수) 09:3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으로 국회에서 2020년도 제7차 전체회의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의 회의록 및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비공개로 안건을 논의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 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및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의결안건 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1건 및 <보고안건> 3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의결안건 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기획조정관 순으로 공개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20-10-044)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지원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및 (주)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재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 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한다’입니다. 과기정통부 조건 중 열여섯 번째에 있는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혹은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고사항 부과입니다.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 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딜

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모회사인 (주)딜라이브와 동일하게 2025년 1월 27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등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자 현황입니다. (주)딜라이브는 총 16개 방송구역에서 영업중이고 14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6일 사전동의를 이미 의결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법인, 2개 구역에 대해 오늘 의결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자의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작년 9월 30일에 과기정통부가 (주)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등 재허가 심사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과기정통부 심사가 진행되었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14개 구역에 대해서는 1월 22일자로 위원회 사전동의한 내용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재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 과기정통부가 이번 2개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해 왔고, 위원회에서는 650점 이상으로 왔기 때문에 약식심사위원회를 지난 2월 12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주요내용입니다. 방송·법률·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약식심사위원회는 (주)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등의 재허가 신청서 및 과기정통부의 조건(안)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허가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기정통부의 “16번 조건,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안)은 (주)딜라이브 재허가 당시 허가 유효기간이 최초로 만료하는 방송구역을 기준으로 14개 방송구역을 일괄 재허가함에 따라 종전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일부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부가한 조건으로, 이는 1개의 방송구역을 운영하는 (주)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번 재허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자의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위약금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은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권고사항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번 14개 구역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시 부과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편 (주)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등은 (주)딜라이브와 계열관계로 사업계획서가 거의 동일함에도 허가 유효기간의 차이로 인해 법인별로 각각 심사하는 것이 사업자의 과중한 부담 및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함에 따라 (주)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모회사인 (주)딜라이브와 동일하게 2025년 1월 27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는 내용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허가유효기간보다 약 2개월가량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건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약식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등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별이 아닌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작년 말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은 MSO인 (주)딜라이브의 자회사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와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의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3인의 약식심사로 운영했음에도 심사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해 준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회사 재허가 조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심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고된 조건과 권고사항들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면 재허가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의 재허가 유효조건을 이미 재허가받은 모회사와 동일하게 2025년 1월 27일까지로 맞출 경우 장·단점이 발생합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장점은 한 번에 재허가 준비를 하게 되어서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이 각각 한 달 또는 두 달씩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정책 제안 형태로 제시하지만 이에 앞서서 사업자 의견은 어떤지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업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정 편의 부분에 있어서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 부분에 우위를 더 둔다는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지상파도 여러 방송국이 차이가 날 때 사업자가 오히려 요청해서 하거나 일부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맞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자가 재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런 조치 자체가 적극행정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이 안건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표철수 상임위원

-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다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이행실적은 현장실사와 자문단 논의 등 검증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으나, 2019년도 이행실적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과 11월에 종합 및 보도 PP 재승인 관련해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2월까지 종편 및 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을 접수받았습니다. 이행실적 점검 관련된 세부적인 경과는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확인대상입니다.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와 종편PP 4개사 및 보도PP 2개사의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조건 부과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콘텐츠 투자비 같은 경우 가결산 자료로 점검하였습니다.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입니다. 첫 번째,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입니다. 4개사에 공통적으로 부과된 조건이고, 조건 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이행여부는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 중인 것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해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입니다. 4개사 공통입니다. 조건내용의 세부내용은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과 관련해서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채널A가 1건, MBN이 1건 이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19년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2건으로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기구 구성 관련해서는 TV조선과 채널A에 부과된 조건인데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고, 채널A의 경우에는 게이트키퍼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공정보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진행자·출연자의 법정제재 시 진행자와 출연자를 출연정지시키라는 TV조선에 부과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여부 관련해서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하라는 조건인데, '19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법정제재받은 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탐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사 공통조건입니다.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적인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방비율 관련해서 MBN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계획 40.8%였는데 '19년도 재방비율이 39.4%로 확인되어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인데 사업자가 제출한 가결산 자료를 확인했는데 TV조선과 채널A는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JTBC와 MBN의 경우 하반기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가결산이 끝나고 본결산 자료를 받아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 관련해서 TV조선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고, TV조선이 출자법인을 통해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고, 콘텐츠 관련 펀드에 TV조선이 일정금액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펀드 조성 관련된 내용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외주상생방안 준수와 관련해서 MBN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가지 외주상생계획 세부내용을 보시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열 번째,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관련해서 MBN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사외이사진을 개편하고, 사외이사 2명·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시청자 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관련해서는 TV조선, MBN, 그리고 사회적소수자 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는 공통, 이렇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로 방송사에 부과된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 내용도 역시 미준수하고 있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치현황 관련해서 연합뉴스TV와 YTN이 이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연합뉴스TV 관련해서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 참조 동그라미 2개에 있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18년도 종편PP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 점검결과에서 정정하는 내용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18년도 종편PP 콘텐츠 투자실적 점검결과, 당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항목들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22일자로 위원회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투자계획은 달성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채널A 관련해서는 20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944억 6,700만원으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불인정하는 항목은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DMC 방송시설 관리비용 5억 700만원,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1억 5,500만원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V조선과 관련해서는 '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899억 6,500만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불인정하는 항목은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1억 1,200만원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동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치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사업자별 재승인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치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4개 사업자는 3월 재승인 심사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승인이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경우 향후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JTBC와 MBN은 하반기에 심사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 여부를 6~8월 까지 점검을 한 후에 조치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재승인 조건 부과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재승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재승인이라는 행정행위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재승인 조건의 이행점검은 행정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고안건>은 '17년과 '18년에 이어서 '19년도 종편 및 보도PP의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는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지난해 재승인 이행실적이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하는데 <4>번 항목에서 진행자·출연자 법정제재 시 법정제재 판정을 받아도 만약 소송을 하면 최종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산업이 안 됩니다. TV조선의 경우 실제 법정제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불산입했던 것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TV조선의 경우 소송 중인 건이 2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 2건의 경우 검증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작년에는 TV조선의 경우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자와 외부 출연자를 출연정지 조치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 외 종편PP는 재승인 권고사항 가운데 미준수 항목은 없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보도PP 가운데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독립성 확보의 권고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고, 연합뉴스TV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권고사항의 내용은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었고,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다거나 광고를 연합뉴스에 위탁해서 광고판매를 하고 있다는 등 2가지 정도 중점사항이 있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운영의 독립성에 구체적 내용을 두고서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 부분은 다음 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우선 종편과 보도PP에서 특히 종편채널에서 권고사항 또 재승인 조건을 다 잘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 품격제고 계획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노력에 대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를 매년 4건으로 줄이라는 조건에 대해 2개사가 1건씩만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무슨 의도된 잘못이 아니고 진행자가 잘못된 내용을 언급했거나 자막이 잘못된 오기가 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습시다. 특히 지금까지 종편방송들이 초창기에 보면 보도전문채널이나 마찬가지로 너무 보도 장르에 방송비율을 할애해서 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서 방통위에서 합산비율을 준수하라는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보도 장르라면 뉴스나 탐사보도, 또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인데 합산해서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특히 30% 미만으로 대부분 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보도채널 같은 성격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편, 종합편성의 당초 허가 취지를 잘 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종편들이 종합편성채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해서 껍 반가운 보고라고 생각합

니다. 특히 콘텐츠 투자금액을 보면 당초 TV조선과 채널A가 990억원 정도를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연간 또는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런데 모두 지난 '19년도에 제출실적을 보면 이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이 아닌가, 특히 종편들이 오락 부분도 어느 프로그램은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편들이 보도 장르에 치중했던 방송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정말 종합편성 방송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현상이 눈에 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방송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입부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19년도 실적은 저희가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콘텐츠 투자비용도 가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정도부터 시작할 실제 점검으로 인해 약간의 변동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 낼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하도록 추가로 여기에 언론인들이 제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종편사업자들에게 심의에서 법정제재가 1년에 4건 이내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는 대로 4월 15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재를 받아도 방송평가의 감점으로 반영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에 보면 YTN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노사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 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했고, '19년도에 7차례 개최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한 것 같은데, 회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작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구성 다양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시청자의 권익보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되겠지만 시청자위원회 회의의 내용이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그것이 반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잘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나>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디어 다양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35조의5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개요입니다. 목적과 평가절차 및 방법은 생략하고, 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평가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관련 전문가들과 방송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심의를 거친 후 마련된 것이며,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 방송산업 실태조사,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등 관련자료와 방송사업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방송시장 확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구분하고, 방송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대체성, 지리적 범위, 거래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시장은 SO, 위성, IPTV 등의 사업자가 다채널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상품시장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리적 시장은 가입자 점유율과 상품가격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SO 방송구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전국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 동질화 추세를 고려하여 지난해에 이어 전국 시장단위의 분석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방송채널거래시장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 사이에 전송권이 거래되거나 그 대가가 결정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료방송채널시장>과 <지상파방송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방송채널거래시장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CJ 계열 등 영향력이 큰 PP들 간의 차별화 요소가 줄어들고 있어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내년도 평가 시에는 시장확정 재검토 문제를 면밀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은 외주제작프로그램 거래시장 전체를 동일상품시장으로 확정하였으며, 방송광고시장 또한 방송광고시장 전체를 동일상품 시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별 평가결과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획정 대상인 유료방송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년 말 기준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 수는 3,272만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SO 가입자 수는 1.7% 감소하였으며, IPTV 가입자 수는 9.3% 증가하여 SO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8년 말 기준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SO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1.9% 감소한 반면 IPTV는 1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SO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IPTV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의 경우 SO는 전년과 유사한 반면, IPTV는 전년 대비 45.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IPTV 가입자가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가입자 수가 5.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KT계열이 78개 구역 중 48개 구역에서 가입자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CJ헬로가 11개, 딜라이브가 9개 등 MSO 사업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SK계열이나 LGU+가 1위를 한 구역은 없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료방송사업자 간 M&A 결과를 반영한 가상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78개 구역 중 1위 구역 수는 KT계열 34개, SKB&티브로드 17개, LGU+&CJ헬로 13개로 나타났습니다. 방송구역별 HHI 평균은 3,086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권역을 SO 방송구역이 아닌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SO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8.9%, IPTV 58.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시장 기준 점유율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KT계열 38.4%, SK계열 17.7%, LGU+ 15.0% 등 2015년 이후로 IPTV 3사가 상위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국시장 기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HHI는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인수합병 조건을 더해서 가상 분석한 결과, KT계열 가입자 점유율은 38.4%, LGU+&CJ헬로 25.3%, SKB&티브로드 24.1%로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87.8%에 달하였습니다. 다음은 8VSB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8년 8VSB 가입자는 586만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하였습니다. 8VSB가 이전 아날로그 가입자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으며, OTT서비스가 VOD를 제공하지 않는 8VSB 상품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시장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18년 기준 OTT서비스의 이용률은 42.7%로 OTT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시장획정 대상인 방송채널거래시장입니다. 먼저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과 관련 '18년도 홈쇼핑PP 등을 제외한 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 제공 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프로그램 제공 매출 기준점유율은 CJ계열 29.3%, MBC계열 6.1%, SBS계열 5.8%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파방송 3사 재송신 거래시장입니다. 디지털 유료방송가입자 증가와 CPS 인상 등으로 지상파방송 3사의 채널 재송신권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25.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위 그래프에 나타나듯 지상파방송사의 재송신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상파방송3사 채널의 필수재적 성격으로 각 채널을 별도 시장으로 확정함에 따라 시장집중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료방송사업자의 성장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협상력 감소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방송채널 거래시장을 전체 방송채널 기준으로 병행 분석한 결과입니다. 11쪽입니다. 전체 방송채널 제공 매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방송채널 제공 매출액 기준으로 1위 사업자는 CJ계열로 20.3%를 차지하였으며, 14.3% MBC계열,

13.9% KBS계열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편계열 PP의 점유율은 증가 추세이나 CJ 및 지상파계열과는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시장확정 대상인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입니다. '18년 전체 외주제작비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비가 5% 감소하였고, PP의 경우도 7.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상위 3대 수요자는 여전히 지상파 3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669개사로 이 중 87.7%는 연간 5개 이하의 납품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0개 이상 납품한 외주제작사는 31개사에 불과합니다. 외주프로그램에 대한 지상파3사 계열과 주요 PP계열의 수요 증감이 혼재된 가운데 전체적인 수요집중도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집중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협상력 우위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외주제작사의 대형화 또는 공동협상 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네 번째, 시장확정 대상인 방송광고거래시장입니다. '18년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모바일 광고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방송과 인쇄매체, PC의 광고 비중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고시장에서 모바일 광고 비중이 25.8%를 차지하여 방송광고 비중을 턱 밑까지 추격 중이며, 아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모바일광고 비중이 방송광고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상파3사의 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종편계열의 방송광고매출액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CJ ENM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18년 협찬매출액도 전년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안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료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과 관련 3개 사업자 담합으로 불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이 일어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상파 CPS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인수합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8VSB와 관련해서는 이 시장이 결국 디지털 시장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점차 소멸해 갈 것인지, 아니면 OTT 등을 보완재 삼아 자생력을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 평가 시에는 방송채널 거래시장 확정 시 지상파3사 주요 PP들과의 영향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확정 재검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J계열과 종편계열의 방송광고매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는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방송광고 관련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보고 이후 3월 중으로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본 연구를 일선에서 수행해 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필요할 경우 연구진들이 직접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관심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ISDI 연구진도 함께 배석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

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시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즉 단위시장 획정은 기존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료 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색다른 점은 향후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도 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통신사와 SO의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공식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평가해 봤다는 점입니다. 그랬더니 LGU+와 CJ헬로, SKB와 티브로드 간의 M&A가 성사될 경우, 이 표현을 사전에 예측했기 때문에 '성사될 경우'입니다. 그래서 '18년 전국적으로, 또한 전체 상품 가입자 기준으로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1,657에서 2,234로 증가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완료된다면 전체 상품 대상가입자 수 기준점유율이 KT계열, LGU+ 또 SKB계열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인수합병 전에 58.1%에서 79.8%로 올라갑니다. 이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7.8%에 달합니다. 향후 방송시장 구도가 결국 통신사 3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유료 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구조와 사업자 간 경쟁 양상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을 요약하면 방송시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의 점유율은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IPTV와 SO 간 격차는 확대되어서 유료방송시장이 IPTV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면서 콘텐츠 경쟁과 시청률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시장집중도는 전년에 이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IPTV와 비지상파채널 등 후발사업자의 성장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의 가입자 집중도, 방송채널거래시장의 집중도, 방송광고시장의 집중도 및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수요집중도가 감소하고 있어서 시장구조가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방송광고시장 특징으로는 CJ ENM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CJ ENM의 광고매출 점유율이 13.8%에 달하는데 지상파방송 3사 모두를 추월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광고시장 집중도가 완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OTT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간 대체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OTT 동영상서비스의 이용률과 유료 가입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인접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는 KISDI에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책자로 나와서 나중에 국회로 보내질 것이지요. 외주제작사가 보면 납품을 한 번이라도 있는 외주제작사가 약 669개니까 6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9개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생겼다가 또 실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연히 도태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품실적 있는 외주제작사의

87% 정도가 연간 5개 이하, 10개 이상은 31개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아직도 외주제작 시장이 메이저로 편중되어 있고 군소 외주제작사는 계속 부침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정책과제로 살펴봐서 외주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KISDI에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방송광고시장인데 보니까 협찬매출액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약 4,700억원, 또 '15년도에 6,900억원, '16년도에는 7,000억원이 넘게 급상승했는데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17년, '18년은 뚝뚝 떨어져서 '18년도에는 6,500억원으로 협찬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협찬감소 분석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실 그룹장

- 정확히 어떻게 분석될지 쉬운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협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분명한 것 같고, 이것이 결국은 방송사 수입의 다른 부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PCM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매출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협찬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방송사와 이야기해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서는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좀 전에 존경하는 허 욱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통신사의 MSO 인수합병 등으로 플랫폼 부분에 시장집중도가 3사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이럴 경우 과점에 따른 담합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데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책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도 협찬매출액 준거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광고시장이 나빠지면서 광고가 줄어들어 협찬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따로 더 자료를 확보해야 하겠는데 3사의 광고매출 대비 협찬의 비중은 아마 더 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8VSB의 VOD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ETRI가 MSO와 협력을 해서 8VSB도 VOD 쌍방향 기술이 이미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8VSB가 아직 VOD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석진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문제인데 10개 이상 납품하는 외주 제작사가 31개에 불과하다고 또 작년에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 59개가 감소하는데는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분석하시면서 구조적 문제가 뭔지 파악하셨

는지, 그리고 혹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 혹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되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방송시장의 아주 오래된 관행 그리고 특히 과거 지상파 위주에서 지금은 콘텐츠 수요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외주제작사들은 굉장히 군소화 사업자들이 많이 존재하면서 외주제작사들 간 어쨌든 단일한 힘을 낼 수 있는 조직의 결속력은 약해진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저희 편성평가정책과에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평가조사사업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의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조사결과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향후 평가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협력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남북 간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의 대상과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동소관인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동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남북 간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의 대상입니다. 제1호로 남북한 방송통신프로그램 제작, 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송통신기술협력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방송통신용어, 방송언어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그 밖에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법제처에서 유사 입법례를 통하여 제시한 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5월 규제위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5월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1일에 시행하게 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보고안건은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 제도 및 현황 관련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예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남북 간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대상을 명시하고 방송통신사업자나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남북 간 방송통신 분야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접수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먼저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 말씀해 주시지요.

○ 김석진 부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음 비공개 인사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아직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아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리에 앞서서 마지막으로라도 최종적으로 위원님들끼리 따로 만나서 의견을 마지막으로 나누어보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어떻습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좋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장내 정돈하는 동안 잠깐 장소를 옮겨서 논의를 하시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6분 정회 】

【 10시 33분 속개 】

○ 한상혁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2020-10-045) (비공개)

【 10시 56분 】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2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7분 폐회 】